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더불어민주당,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삼 정치평론가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및 정통방법 위반 혐의

- 3일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제출 ... 근거 없는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 유튜브 방영
- 1일 방송서 객관성 잃은 박철민 발언 단정적 반복적 사용해 이 후보 비방... ‘악의적’
- 공직선거법 잘 아는 법조인과 윤 후보 캠프 중책 맡은 정치인 ... 소환조사 엄정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국민통합 특보를 맡았던 민영삼 정치평론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브에 출연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가 경기도 前 공무원을 통해 이 후보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후보가 마치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법조인과 윤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 방송을 통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 검찰 측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승희, 민영삼 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일 배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이날 방송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가 경기도 前 공무원에게 5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이 후보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배승희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홍준표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당 대표가 직접 제20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사람”이라며 “피고발인 민영삼은 국민의 힘 윤석열 예비후보 조직본부 특보단 국민통합특보를 맡으며 방송 및 유튜브 등의 정치 시사프로그램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박철민 발언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고,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였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바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선거인단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나올 것”이라며 “즉시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끝)

